영국 에든버러대, 불교학 석사과정 신설

학제 간 융합연구 중심 교육
전문성 갖춘 교수 대거 포진
실용적인 프로젝트 참여로
불교 연구 선도 대학 목표

김민재 객원기자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 전경. 사진 출처=위키미디어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에든버러대에 불교학 석사과정이 신설됐다. 지난 8월 13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영국 에든버러대 불교학 석사과정 신설 소식을 전했다.

에든버러대학은 학제 간 연구를 제공하는 불교학 석사(Master of Science)과정을 신설했다. 불교학 석사과정은 에든버러대학 내 다양한 분야에 포진된 교수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교 철학, 불교 윤리, 불교 미술, 불교 문화, 불교 문헌 및 현대적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고안됐다.

불교학 석사과정 학과장 폴 풀러 박사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불교학 석사과정은 에든버러 대학에서도 매우 독특한 다양성을 가진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면서 "초대 학과장으로서 지리적, 언어적, 역사적 관점의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불교학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뛰어난 수준의 학문을 견고히 완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사과정은 광범위한 불교 개론과 심화 전공을 모두 제공한다. 핵심 과정은 △불교 연구 구상: 방법과 주제(20학점) △불교 신앙와 종교학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10학점) △불교학 연구 방법(10학점)이 포함되며 대학원생은 1만 5000단어 분량의 논문(60학점)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실천 불교, 상좌부불교, 불교 윤리학, 히말라야의 예술과 불교 신앙 등 다양한 선택 과목(80학점)이 개설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과 역사적 시기에 걸쳐 변화한 불교의 다각적 측면을 탐구할 수 있다.

초기 인도 종교학 박사 나오미 애플턴 교수는 "에든버러대학은 학문, 지역, 시대 및 주제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교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다양한 교수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실천 불교 강의는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불교 유물을 탐구하거나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대되는 강의 중 하나이다. 학생 스스로 연구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즐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학제 간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에든버러 예술대학의 야샤스위니 찬드라 박사는 불교의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 특히 인도의 예술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찬드라 박사는 "현재 불교는 인도에서도 쇠퇴하였으나 인도 예술과 문화, 역사, 정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종교"라면서 "불교 미술 강의를 통해 인도에서 동아시아까지 불교 예술과 문화 전파 과정을 가르칠 것이다. 불교 문화 교차로의 역할을 한 히말라야 산맥에 대한 강의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언어문화 연구원인 아비가일 맥베인 박사는 "에든버러 불교학 석사과정은 종교 연구의 본질은 '학제 간 연구'가 근본적인 원칙으로 신설된 학과"라면서 "불교가 전근대 동아시아에 문학, 사상, 예술, 음악, 의식 등 문화적 표현의 교류를 촉진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폴 풀러 학과장은 "첫 불교학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만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으로 구성했다"면서 "우리 교수진은 불교 사상과 관습이 아시아와 현대 문화 형성에 이바지한 점을 상기하고 미래에 불교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엔 '월 1회 클럽' 변신하는 법당 있다

법요 · 정기행사 지키며 이벤트
"모두에게 열린 절 되길 바래"


클럽으로 변신한 만류지 법당에서 공연하는 뮤지션들. 사진출처=시나노 마이니치 신문

일본 나가노현 스자카시에 소재한 고찰 만류지(滿龍寺). 최근 사찰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시도들이 젊은 세대들의 인기를 끌어 화제다. 지난 8월 16일 일본의 '시나노 마이니치 신문'은 만류지의 사찰 클럽 '우츠츠'에 대해 보도했다.

매월 초하루 저녁이 되면 만류지의 법당과 마당은 클럽과 플리마켓으로 변신한다. 법당에는 미러볼과 선명한 조명들이 설치되고 뮤지션들의 공연들이 진행된다. 일반 사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2017년 10월부터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진행 중인 만류지 주지 다카츠 켄지 스님은 "종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절에 발길을 옮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획의도를 전했다.

켄지 스님은 전대 주지인 일본인의 아버지와 독일인의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출가하여 만류지를 이으려 했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2010년 독일로 건너갔다. 약 5년 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등 농장과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다양한 체험을 했다.

스님은 "독일에서 오래된 공장이나 폐선을 개조한 클럽, 레스토랑 등 '업사이클링'으로 재탄생한 건물들이 많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오래된 것을 소중히 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가치관과 행동에 큰 인상이 남았다고 말했다.

귀국 후 독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접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열린 사찰을 지향하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신도회와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새로운 사찰 운영 방식에 찬반이 갈렸다. 보수적인 신도회와 특히 전전대 주지스님인 켄지 스님의 할아버지가 격렬히 반대했지만, 끝내 켄지 스님의 진지한 생각에 찬성을 표했다.

현재 만류지는 전통적인 법요와 정기행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이벤트들을 속속들이 진행하고 있다. 그중 매월 초하루 저녁에 열리는 클럽법당 '우츠츠'는 가장 큰 행사다. 미러볼로 본당을 비추고 DJ가 음악을 믹싱하는 등 각종 이벤트로 가득하다. 켄지 스님은 "초하루는 지난 달의 끝이자,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재출발의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내일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수술 후 첫 일정 개시

뉴욕 이타카 소재 남갤 사원 방문


이타카 남갤사원에서 연설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자유 아시아 방송

지난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달라이라마가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 나섰다. 지난 8월 16일 달라이라마는 회복을 위해 머무르던 시러큐스시에서 뉴욕시로 돌아가는 도중 이타카시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 사원인 남갤사원을 방문했다. 1시간 남짓한 방문에 달라이라마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 달라이라마의 첫 행보에 대해 '자유 아시아 방송' '더 이타카 보이스' 등이 특별 보도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타카 남갤사원에 도착한 달라이라마는 남갤사원의 상주하는 스님들과 인도 남갤사원의 전 방장인 탐톡 린뽀체의 영접을 받았다. 이타카 남갤사원은 "지난해 남갤사원에 새롭게 완공된 달라이라마 도서관과 불교학 연구소 개관을 기념해 사원을 방문해 주시길 요청했다"며 달라이라마의 방문 계기를 전했다.

달라이라마에게 헌정된 도서관과 불교연구소는 2023년 9월에 개관했으며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담긴 4만 시간 분량의 디지털 오디오 아카이브, 약 4천권의 불교철학서, 이외에 인도와 티베트에서 수집된 불교 유물이 수장돼 있다.

이타카 티베트 협회 회장인 땐진 최끼는 "이곳은 달라이라마의 개인 사원인 인도 남갤사원의 공식분원이다. 또 이타카는 미국에 망명한 1세대 망명 티베트인 공동체가 자리 잡은 곳인 만큼 달라이라마께서 방문해 주시길 고대했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가 마지막으로 이타카 남갤사원을 방문한 것은 2007년이다.

달라이라마는 짧은 연설에서 "제가 난민이 아니었다면 티베트 라싸의 높은 왕좌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망명을 통해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본질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는 하나이며, 저는 물론이고 모두는 각각 다른 이들로부터 연민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며 항상 자비를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싱가포르 국립대, 불교학 연구회 출범

교직원 · 학생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강의로 지식 제공도


NUS 불교학 연구회 공식 출범과 '부처의 많은 얼굴' 전시회 참석자들. 사진 출처=테멘공 아티스트-인 레지던스

지난 8월 12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불교학 연구회 출범 소식을 전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는 8월 3일 불교학 연구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불교학 연구회는 예술사회과학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자발적결사체로 공동 연구를 통해 학자와 대중이 불교에 대한 공동 학문적 탐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목표로 한다.

불교학 연구회 창립 의장이자 NUS 역사학과 잭 멩 탓 치아 부교수는 "싱가포르는 동서양 불교학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면서 "NUS 불교학 연구회는 학술 연구와 지역 사회 참여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럽, 미국의 불교 연구회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배우고 업적을 본받아 더욱 뜻깊은 성과를 내고 싶다"고 창단 경위를 밝혔다.

NUS에는 불교학과나 불교학 강의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수불자회와 외래교수불자회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비공식 불교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불자 교수의 기여로 대학 내 불교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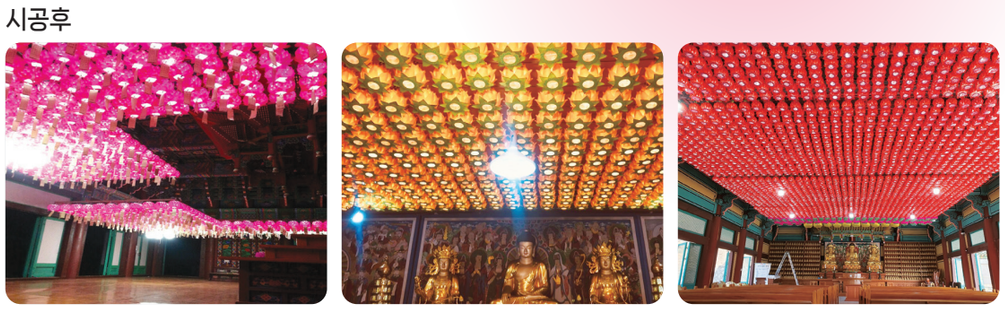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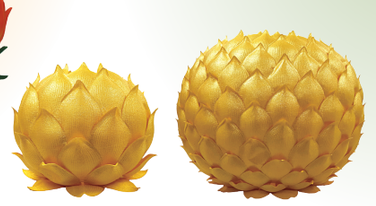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